2020 새 설계 허 석 순천시장

"생태·문화 두축, 순천 위상 높이고 지역발전 이끌 것"

2023년 정원박람회 개최 총력
생태·교육·경제 3E프로젝트 추진
미래형 기업 유치 투자경제 올인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해'인 2020년을 생태와 문화를 두 축으로 하는 평화와 경제 번영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경자년 새해는 생태에 문화의 옷을 입히고, 예술의 선율을 더해 순천이 세계 관광의 별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많은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허 시장은 시 승격 70주년이자 순천방문의 해였던 2019년은 "경전선 고속전철화 사업 등 해묵은 과제들을 풀어냈고, 28만 시민의 힘으로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여는 등 대내외에서 도시의 경쟁력을 인정받았던 뜻깊은 한 해였다"고 자평했다.

이어 올 한 해 동안 순천시가 해야 할 주요 추진 과제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10주년이 되는 2023년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또 한번 개최하기 위한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의 승인과 2025년 국제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꼽았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으로 3국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담긴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문화와 평화 도시로 도약하는 한 해로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허 시장은 "새해는 교육과 생태를 경제활력으로 이어가는 3E 프로젝트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4차 산업 기술과 융합해 미래형 생태경제 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생태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일상에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NO 플라스틱 도시, 순천 시민운동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시민들이 일상으로부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24시간 돌봄과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 농어업인 공익수당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순천이 전남 제1의 도시를 넘어 광주, 전주와 함께 호남 3대 도시 진입을 목표로 과거 순천도호부의 영광과 자부심 재현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 대한민국 국가 정원의 원조인 순천만국가정원이 더 빛나는 품격을 위해 국가 정원 내 국제적 생태미술관을 조성하고 세계적 생태예술가들의 교류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0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해 차세대 미래산업 정원산업의 가치를 증명하고, 정원박람회 개최 10주년 되는 2023년 두 번째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해 생태 도시로 거듭난 순천의 위상을 세계에 선포할 야심찬 계획도 추진한다.

정원박람회 승인 국제기구인 AIPH에서 2020년 2월 현지실사와 3월 총회 승인 및 7월 기획재정부 국제행사 정부 승인이 예정돼 있다.

순천의 미래 성장 거점인 연향뜰 일원을 미래산업 특구로 지정해 발전시키는 것도 2020년 중요한 사업이다. 잡월드 준공에 이어 목재 문화체험장이 문을 열면 청소년들이 꿈과 미래를 키우는 체험교육 메카로 떠오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연계해 1000만 관광객 체류를 위한 대규모 숙박시설을 유치하고 광역관광 셔틀버스 정류장 및 면세점 유치, 마그네슘 상용화 지원센터의 성과를 위한 미래형 기업 유치 등 투자경제에도 올인할 계획이다.

시민의 일상을 넉넉하게 채워줄 복지정책도 변함없이 추진한다.

허 시장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복을 입고, 친환경 급식을 먹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스쿨존 내 속도제한 카메라 의무 설치 등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2020년 시민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는 공정한 도시, 일상이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 책임과 의무가 있다"면서 "마음의 끈을 더 단단히 동여매고 28만 시민들과 함께 살기좋은 순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2020년 주요 사업은

▲생태에 문화의 옷을 입히고 예술의 선율을 더해 세계 관광의 별로 육성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평화 도시로 도약
▲경제로 신나고 내일이 더 기대되는 순천 건설
▲생태(Ecology) 교육(Education) 경제(Economy) 3E 프로젝트 추진
▲시민의 일상을 넉넉하게 채워줄 복지정책 구현

"'부부세습 논란' 순천문화원장 선임 절차 하자 있다"

권익위, 사무 감사 결과 발표

'부부세습' 논란이 일었던 순천문화원의 원장 선임 절차가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천문화원 정상화 추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순천문화원 법인을 사무 감사하고 최근 결과를 발표했다.

사무 검사 결과 지난해 10월 전 원장의 부인인 송혜경 전 순천시의원을 신임 원장으로 추대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지만, 정족수에 미달한 채 원장을 선임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고 문화원 총회를 거쳐 원장을 재선임할 것을 통보했다.

불투명한 회계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순천문화원은 연평균 1억원에 달하는 임대 수익금을 회원 회비와 같은 계좌에 관리해 문제가 됐다.

권익위는 2017~2019년 수익금 2억9688만원을 운영비로 편성해 지출했으나 지출 증빙자료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문화원은 또 2013년 순천시와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이겨 3억원을 받았지만, 기본재산이 아닌 일반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전남도와 순천시에 문화원의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통보했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전남도는 관리책임을 방임한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고 순천문화원을 법적 고발 조치하라"며 "순천시도 문화원을 해산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이어 "절차를 어기고 취임한 송혜경 원장과 현 문화원 이사진은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즉시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지난해 살기 좋은 숲의 도시 순천을 만들기 위해 진행한 '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 모습.

신대, 남제·풍덕, 조례지구 순환버스 3개 노선 확대

순천시는 교통 수요가 늘고 있는 신대, 남제·풍덕, 조례지구에 도심권 순환버스 3개 노선을 확대 운행한다고 8일 밝혔다.

순천시는 오는 2월 신대지구에 문을 열 삼산중학교를 경유하는 내부 순환노선을 신설해 3월부터 운행하기로 했다.

순천만국가정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순천역과 오천지구 아랫장을 순환하는 노선도 7월부터 운행한다.

하반기에는 조례 호수공원이 있는 왕지동과 순천지원을 연결하는 순환노선을 신설하기로 했다.

순천시에는 56개 노선에서 175대의 시내버스가 운행 중이며, 순환버스가 신설되면 59개 노선에 178대로 늘어난다.

순천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청암대와 순천만국가정원, 연향·금당지구의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환버스 노선은 운행 구간이 짧아서 신규 노선에 1대씩 투입해도 15분 간격으로 운행할 수 있다"며 "주요 지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간선 급행버스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2020년 반려나무숲 조성사업' 공모 신청 17일까지 접수

순천시가 2020년도 천만그루 나무심기 시민운동 활성화와 붐 조성을 위한 '2020년 반려나무숲 조성사업' 공모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모하는 '반려나무숲 조성사업'은 반려나무숲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을 통해 조성된 부지에는 시민과 희망단체가 직접 나무를 구입해 식재와 관리를 해야 한다.

사업을 원하는 시민과 사회단체에서는 오는 17일까지 순천시 공원녹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순천시에서는 신청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천만그루 나무심기 시민운동본부'와 현장심사를 통해 8개소를 확정해 2020년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미세먼지, 폭염 등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살기 좋은 숲의 도시 순천을 만들기 위해 '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천만그루 나무심기는 무엇보다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반려나무 갖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순천=차성환 기자 csh@kwangju.co.kr